

주일오전예배

AM 11:00

인도/설교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4장
교 독 문	133번
기 도	이성희 장로
찬 송	149장
성경봉독	대상 15:25-29
설 교	(52강)하나님의 도움
기 도	설교자
찬 송	408장
교회소식	김종건 장로
찬 송	4장
주기도문	다함께

다음주 기도 : 김종건 장로

수요일예배

PM 19:00

인도/설교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401장
기 도	다함께
찬 송	426장
성경봉독	잠 18:6-9
설 교	(74강) 열망이 되는 입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함께

교회소식

1. 예배 후에 제직회 있습니다
2. 한옥집 권사께서 칠곡경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율법과 우리의 행함을
제대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은 없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행함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죄를 알게 하는
율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흉내 내는
또 다른 죄로 드러난다.

죄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행함이
지워진 그 자리에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

성도는 그 사랑을 믿는다.



2023. 6. 4 주보

■ 실 패 하는 교회 ■



십자가는

죽음을 통과하여
공훈의 자리에서
자기의 것이 사라지고
주의 은혜만 남게 되는
성령의 경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은석교회

목사 신 윤 식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8길 7-12

(053) 421-9049

www.onlycross.net

오늘의 성구 묵상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 13:23)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택하여 부르신 자가 성도다. 그러면 성도는 죄인으로 사용될까? 아니면 의인으로 사용될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을 통하여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누가 구원받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쓸모 있는 자는 죄인이다.

물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가 성도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이 의인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인간은 끝까지 죄만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을 자신의 현실로 깨닫고 예수님의 의에 가치를 두게 된 그들이 성도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되고자 하는 것이 없다. 죄인 된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에 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교만임을 안다. 그런데 사탄은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게 한다. 믿음의 능력이 되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치는 행함이 있어야 성도라고 유혹한다. 이처럼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왜곡된 믿음에 불들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은 씨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이 되어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이 있는 성도 되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는 길 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돌밭,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열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의 마음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인간의 해석이다.

씨뿌리는 비유의 의미는 간단하다. 인간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힘이 없고 환난, 박해,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이룰 자질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 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의 결실이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인간의 마음 상태는 모두가 같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서의 마음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말씀을 빼앗기고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것도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말씀이 뿌려지므로 드러난다.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이 있다 해도 여전히 자기 생존을 중요시하는 것이 결실할 수 없는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져 결실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질이 아니라 외부의 능력이 개입하여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에게 개입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통하여 주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좋은 땅으로 비유된 성도의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자신의 믿음이나 힘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육신에 시선을 두게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 감지하며 자신을 경계하게 된다.

성도는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일을 자기의 힘이 아닌 외부의 능력으로 알고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께서 함께 하여 일하심을 믿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높이게 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음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실하는 것도 흔히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으로 가지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음으로 결실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죄다. 자신이 죽은 자이며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 되고자 했던 모든 것이 교만임을 알게 된다. 성도는 이러한 깨달음에서

자신이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버림받은 자임을 알게 되며 주의 긍휼을 구한다. 이러한 성도에게 십자가는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 한 없는 은혜가 넘치는 현상이 된다.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에 의한 결실이다.

결실이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라는 숫자적 차이에는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힘으로 맺은 결실이라면 숫자적 차이가 능력의 차이로 드러나겠지만 말씀에 의한 결실이기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실이 백 배든 삼십 배든 그것은 기적이며 좋은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계속되는 유혹은 '자기 확신'이다. '나는 좋은 땅인가?' '나는 좋은 땅이 되었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가?' 이러한 유혹에 불들려 시선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에만 관심 두고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성경을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염려한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자신은 죽은 자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일에 마음이 향하게 된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은 주께 있음을 실감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 이러한 성도에게 십자가는 시시하고 힘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기적으로 자라난다. 이것이 말씀으로 증거되는 좋은 땅이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다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결실이 있는 좋은 땅이 있을 뿐이다. 좋은 땅은 말씀이 주어지면 드러난다.